

32. 하암정

하암정은 해헌(解軒) 황명하(黃命河)가 건립했으며, 온정면 소태리 하암동에 있다. 만곡(晚谷) 조술도(趙述道)의 시(詩)가 있다.

33. 함벽정

함벽정은 1684년(숙종 10)에 울진현령으로 있던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이 창건하였다. 울진읍 읍내리 서쪽 현무암(玄武巖) 벽상(壁上)인 지금의 고파미(姑婆帽) 절벽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잔존하지 않고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의 시(詩)만 남아 있다.

34. 호연정

호연정은 황명처사(皇明處士) 황식(黃湜)이 건립했으며, 평해읍 월송리 서안(西岸)에 있었다. 해은(海隱)의 시(詩)가 있다. 그 후 오랜 세월로 정자가 허물어져 후손들이 선생의 학덕(學德)을 기리고자 1940년 정월 5일에 정사(精舍) 3칸을 중수하고 또한 1984년에 다시 보수하였다.

35. 환월정

환월정은 당시 평해군의 객관(客館) 정문 동쪽에 있었다. 옛 이름은 남대청(南大廳)이었다. 정자 규모는 4칸으로 당시 군수 신유한(申維翰)이 개조하여 실당(室堂)으로 만들어, 난간에 의지해 서서 동쪽에서 뜨는 달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하여 환월정이라 불렸다.

제3절 추모 공간 : 분묘와 사당

1. 사당

울진 지역의 사당에는 몽천사(蒙泉祠), 경무사(景武祠), 봉림사(鳳林祠), 향현사(鄉賢祠), 도통사(道統祠), 신곡영당(薪谷影堂), 구장사(龜藏祠), 경문사(景文祠), 경충사(景忠祠), 몽양사(蒙養祠), 격암선생별묘(格庵先生別廟), 강면사(江棉祠), 아산영당(鵝山影堂), 향현사

(鄉賢祠), 숭계사(崇溪祠), 양현사(兩賢祠), 명고사(明臯祠), 상현사(尙賢祠), 불천사(不遷祠) 등이 있다.

1) 강면사

강성군(江城君) 충선공(忠宣公)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을 배향하였다. 1943년 죽변면 화성3리 용장동 옥계서원(玉溪書院)이 북면 고목리 금성동으로 옮겨갔다. 옥계양사(玉溪養士)들이 옥계서원의 유지(遺地)에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유허비와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 추모비각(追慕碑閣)을 세워 기렸다.

1997년 3월 10일 강면사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문익점의 문행(文行)과 면종(棉種)을 보급해 한국 의료문화(衣料文化)에 공헌한 업적을 기리는 방안을 강구했다. 문서규(文瑞奎)·문원산(文元山)·문광길(文廣吉)·문무준·문정기(文定基) 등의 주선으로 1997년 9월 9일 사우(祠宇)를 창건해 강면사라 불렀다. 문익점의 영정(影幀)과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향사(鄉祀)를 올렸다. 매년 음력 3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2) 격암선생별묘

격암 남사고(南師古)를 배향하는 별묘이다. 1837년(헌종 3)에 본손(本孫) 남명옥(南命玉)과 방손(傍孫) 남치붕(南致鵬)이 별묘를 북평에 이건(移建)하였다. 오랜 세월로 퇴락되어 주손(胄孫) 남우현(南禹鉉)이 근족(近族)과 더불어 1965년 행곡리 율곡으로 이건하였다. 그 후 퇴락되자 2012년 12월 근남면 행곡리 구미동(龜尾洞)에서 중건하였다. 매년 음력 12월 3일에 제향하고 있다.

3) 경무사

참판(參判) 남몽길(南夢吉)을 배향하였다. 1684년(숙종 10) 울진읍 정림리의 옛 지명인 금계동(琴溪洞)인 박금동(拍琴洞)에서 창건해 금계사(琴溪祠)라 하였다. 1851년(철종 2)에 중건(重建)하면서 경무사라 개칭(改稱)하였다. 1877년(고종 14)에 다시 중건(重建)하였으며 매년 한식날에 제향(祭享)하였다.

4) 경문사

고려말 충신인 문명공(文明公) 야은(懾隱) 전녹생(田祿生)·문혜공(文惠公) 뇌은(未隱) 전귀생(田貴生)·문원공(文元公) 경은(耕隱) 전조생(田祖生)·회정(晦亭) 전자수(田子壽)를 배향하였다. 1941년 죽변면 봉평리 반정에서 창건하였다. 매년 음력 10월 3일 제향하고 있다.

5) 경충사

정재(貞齋) 최시창(崔始昌)·최면(崔沴)을 배향하였다. 최시창은 1456년(세조 2) 6월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자 아들 최면(崔沴)과 동순(同殉)하였다.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1932년 유림과 후손들이 원남면 매화1리 죽포동에 경충단을 창건하고 유허비를 세웠다. 음력 3월 14일에 향사하고 있다.

6) 계묘

돈제공(豚齊公) 정수택(鄭洙澤)를 배향하고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정수택은 초 계정씨(草溪鄭氏)이며, 호조참판(戶曹參判)·양주목사(楊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704년(숙종 30) 70세로 돌아가니 불천위(不遷位)를 하사받았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동(溪洞)에 사당(祠堂)을 지었다. 화재(火災)로 사당이 모두 소실되자 후손들이 선조의 위패(位牌) 5위(五位)를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고초산(高草山)에 모셔와 정수택의 불천위(不遷位)와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祠堂)을 재건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당을 산중에 둘 수 없어 원남면 갈면리로 이건하였다. 고초산에 있었던 사당이 철거된 채 방치되었고 풍우(風雨)로 부식되어 지금은 사당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한다.

7) 구장사

우와(愚窩) 전구원(田九畹)과 만은(晚隱) 전선(田銑)을 배향하였다. 1703년(숙종 29) 북면 신화리 신리동에 세워졌으며, 우와 전구원을 봉안했다. 이후 만은 전공을 추가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이후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향사를 지냈다. 서원이던 구장정사(龜藏精舍)가 현존하고 있다.

8) 도통사

문공(文公) 주희(朱喜)·청계(淸溪) 주잠(朱潛)·문절(文節) 주열(朱悅)을 배향하였다. 울진 읍 고성 2리 산성동(山城洞)에 있다. 1924년에 신안주씨(新安朱氏) 울진문중에서는 주희의 성덕을 기리고자 영당 봉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1932년 문공 30세 후손인 주병열(朱秉烈)이 중국에 가서 가져온 주희의 영정을 고성리 산성동에 봉안하였다. 1935년에 산성동에 사우 1동과 강당을 창건하여 도통사(道通祠)라 불렀다. 1936년 3월에 주희·주잠·주열을 함께 봉안하고, 입묘제를 거행하였다.

1994년 9월에 신안주씨 울진종중은 구 사우를 철거하고 사우 12평 삼문 및 담장을 신축하였으며, 강당을 개수·증건하였다. 매년 음력 3월 9일에 제향하고 있다.

9) 명고사

탁계(卓溪) 김공담(金公譚)·동명(東溟) 장효갑(張孝甲)·매헌(梅軒) 장온(張蘊)을 배향하였다. 1690년(숙종 16) 기성면 정명리에서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10) 동양사

효자(孝子) 전이석(田爾錫)과 한재(寒齋) 주필대(朱必大)을 배향하였다. 1716년(숙종 42) 울진읍 후정리 후당동에 세워졌다.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후에 이곳에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강당은 강학소이자 향사처로 활용하고 있다.

11) 몽천사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를 배향하였다. 1631년(광해군 13) 원남면 금매리 몽천(蒙泉)에 창건돼 몽천사(蒙泉祠)라 하였다. 1693년(숙종 19) 몽천사에서 항현사(鄉賢祠)로 모셔가면서 폐지되었다.

12) 봉림사

간재(艮齋) 전우(田愚)을 배향하였다. 1969년 울진읍 정림1리에서 창건하였으며, 전우선생진상(田愚先生真像)을 봉안하였다. 1978년에 봉강영당(鳳岡影堂)을 봉림사로 개칭(改稱)하였다. 매년 음력 12월 3일에 향사하고 있다.

13) 불천사

효자(孝子) 주경안(朱景顏)·배공인(配恭人) 울진장씨(蔚珍張氏)을 배향했다. 1644년(인조 22) 울진읍 고성1리 구만동 주씨집안의 옛터(朱家古基)에 차건되었다. 주경안을 봉안하다가 울진후(蔚珍候) 박왕한(朴王旱)의 주선으로 배공인(配恭人) 울진장씨(蔚珍張氏)를 합사(合祠)하였다. 치제문(致祭文)을 경전(敬奠)하여 오다가 오랜 세월로 퇴락되어 1947년에 중건하였다.

14) 상현사

유신(儒臣) 남영번(南永蕃), 유현(儒賢) 해운(海雲) 남계명(南季明),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를 배향하였다. 1959년 죽변면 화성리 화방동에 있던 양현사(兩賢祠)를 중건(重建)하고, 상현사(尙賢祠)라 개칭(改稱)하였다.

15) 신곡영당

만국(晚菊) 장의상(張益相)을 배향하였다. 1872년(고종 9) 강의계원(講誼契員)들이 사우를 창건하고 신곡영당이라고 하였다. 신곡영당은 북면 소곡 2리 신곡동에 있다.

16) 아산영당

아산영당은 문창후(文昌候) 최치원(崔致遠)·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배향하고 있다. 1888년(고종 25) 울진읍 명도리(明道里) 아산동(鵝山洞)에서 창건되었고, 최치원의 유상(遺像)을 봉안(奉安)하였다. 1925년에 최익현의 진상(眞像)을 추배(追配)하여였다. 향중에서 음력 10월 10일 이곳에서 향사하였다. 아산영당(鵝山影堂) 영건기(營建記)가 있다.

17) 양현사

1864년(고종 원) 죽변면 화성리 화방동에 창건되었다. 1867년에 유현(儒賢) 해운(海雲) 남계명(南季明)과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를 봉안(奉安)하였다. 1959년부터 상현사(尙賢祠)에 봉안하였다.

18) 향현사

남사고(南師古)·효자(孝子) 주경안(朱景顏)을 배향하였다. 향현사는 1693년 울진읍 옥계동에 창건되었고, 격암 남사고를 봉안하였다. 1733년(영조 9)에 향사당(鄉祠堂) 동편(東便)에 이건(移建)해 주경안(朱景顏)도 봉안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19) 향현사

향인(鄉人) 참판(參判) 정공(鄭公)을 배향하였다. 1671년(현종 12) 유림이 평해읍 평해리에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2. 태실

조선 왕실은 자녀가 태어나면 태실(胎室)을 조성하여 태(胎)를 땅 속에 묻었다. 이때 땅 속에 뚜껑을 갖춘 돌로 만든 태함(胎函)을 마련하고 그 안에 태를 담은 백자 항아리와 생년월일 및 태를 묻는 날을 새긴 태지석(胎誌石) 등도 함께 묻었다. 태실 앞에는 태비(胎碑)를 세웠으며, 태봉산을 지키는 사람을 두었고, 태봉의 둘레 일정 구역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금표(禁標) 비석도 세웠다. 또 왕실의 태실이 완성되면 건립의 시말 기록과 일부 도면 등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인 의궤를 함께 만들어 보관하였다.

이렇게 조선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자손의 앞날에 매우 신중을 기하였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가 끊기지 않도록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데서부터 기인했는데, ‘자식은 잘 길러야 반타작’이라는 속담이 보여주듯이 유아 사망률이 높은 옛날에 출생은 곧 생존을 위한 고난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왕실에서의 장태(藏胎) 풍속은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유일의 문화이다.

일반 백성들은 왕실의 태실이 자기 고향에 오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였으며, 태실이 설치되는 지역은 그 읍격이 승격되기도 하였다. 백성들은 왕실의 뿌리가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통해 왕실과의 일체감을 느꼈던 것이다. 울진 지역에도 태실이 5기나 조성되었다. 조선 시대에 울진 지역에 이렇게 많은 태실이 설치되었던 것은 지리적 조건이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에 울진 지역에서는 큰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다.

태를 봉안하는 풍습에 대한 기록은 신라시대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장 활발하게 행해졌는데, 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 맥락을 승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죽계별곡』 등의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 왕실에서의 태실제도는 고려시대에 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 세종 18년 8월 신미(辛未)조를 보면, 음양학자 정양이 올린 상소 가운데 당나라 때 일행의 소찬(所撰)인 『육안태지법(六安胎之法)』을 소개하고, 사왕(嗣王)의 태를 그 법에 따라 안장시키라고 진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중국 당대의 육안태법으로 세종 때 태를 묻는데 있어서 장태길일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당나라의 안태 풍속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태 풍속은 김유신의 장태 기록과 “태경지설(胎經之說)은 신라와 고려조 간에 시작된 것으로 중국 옛날 제도가 아니다.”라고 한 『선조수정실록』으로 보아 태실은 우리 고유의 풍습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왕실의 장태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새 생명의 탄생은 개인에게는 가문을 이어주는 성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며, 특히 왕실에서의 출산은 온 나라의 기쁨이자 축복된 일이다. 왕실에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출산에 대비한 산실청(產室廳)이라는 기구가 마련된다. 산실청의 배설(排設)은 출산 전 5~3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아기 탄생 후 초이례[7일]가 되면 해산된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태는 길일을 택하여 깨끗하게 백 번 씻은 다음 태항아리에 넣는다. 태는 작은 태항아리에 담는데, 먼저 항아리 바닥에 동전을 앞면이 위로 가게끔 놓은 다음 태를 그 위에 놓고 기름종이를 항아리 입구에 덮게 된다. 그 위에 다시 남색 명주로 덮고 난 후 빨간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그 다음 큰 태항아리 안에 솜을 깔고 작은 태항아리를 넣은 다음 그 사이를 솜으로 다시 채우고 뚜껑을 덮어 빨간 끈으로 외면을 단단히 묶는다.

끈에는 장방형의 목간(木簡)을 매다는데, 앞면에는 ‘모년모월모일○○씨탄생○아기씨태(某年某月某日○○氏誕生○阿只氏胎)’라 묵서하고 뒷면에는 ‘호산청사무관○○○호산관○○○(護產廳/事務官○○○護產官○○○)’라고 묵서한다. 마지막으로 의녀(醫女)가 넓적한 독에 태항아리를 넣은 후 길방(吉方)에 안치한다.

다음에는 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이 있게 된다. 태봉(胎峯)이 선정되면 승지가 정각에 내시로부터 태항아리를 받아 안태사(安胎使)에게 전한다. 안태사는 태봉으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태실 조성 전후로 하여 토지신에 보호를 기원하는 제례를 치른다. 장태는 왕자의 경우는 5월·5년·7년을, 왕녀의 경우는 3월·3년·15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태봉등록(胎峰贍錄)』에는 남아의 경우 5개월에, 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장태한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태봉의 조건은 『현종개수실록』에 “들판 가운데(野中)의 둑근 봉우리를 택해서 그 정상에 태실을 만드는 것이 국속의 제도이다.”라 하였으며, 『태봉등록』에는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내맥(來脈)이 없는 곳이며, 용호를 마주보는 곳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세종실록』에도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해야만 길지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형을 풍수지리적 용어로 돌혈(突穴)이라 하는데, 반구형의 산 정상에 태실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정상에 집중된 땅의 지기(地氣)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봉의 입지는 명당(明堂)의 조건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는 왕, 2등급에는 대군(大君)과 공주, 3등급에는 왕자와 옹주의 태실을 조성한다. 금표 구역 역시 태실을 중심으로 왕은 300보[540m], 대군과 공주는 200보[360m], 왕자와 옹주는 100보[180m]로 규정하였다.

태실의 구조는 아기 태실(阿只 胎室)과 가봉 태실(加封 胎室)로 구분할 수 있다. 아기 태실은 왕실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태를 처음 묻은 시설을 말한다. 구조는 태봉 정상에 광을 판 다음 그 안에 태항아리와 지석을 넣은 태함을 매납하고 지상에 무덤과 같이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운다.

가봉 태실은 아기 태실의 주인공이 왕으로 등극하면 아기 태실에 추가로 석물을 장식하는 것으로 왕비 태실도 해당된다. 구조는 처음 조성된 아기 태실의 지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상의 봉분을 없애고 그 위에 부도(浮屠)와 비슷한 석물을 조성한 후 팔각난간석(八角欄干石)을 둘러 화려하게 외부를 치장한다. 그리고 귀부와 이수가 있는 비석을 세운다.

지금까지 울진 지역에서도 5개소의 태실이 조사되었는데, 나곡리 태실, 사계리 태실, 온정리 태실, 삼달리 태실[신래 태실], 월송리 태실[화구 태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신래 태실, 나곡 태실과 화구 태실에서는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어 태실임이 확실해졌다.

1) 나곡리 태실

나곡리 태실[나실 태봉]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6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의 주산으로 경사를 두고 뻗어 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서 봉긋하게 삿갓 모양처럼 솟아오른 봉우리 정상부에 있다. 서쪽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내가 태봉산의 북쪽으로 돌아 흘러가며, 주위로는 논이 형성되어 있다. 좌청룡·우백호의 역할을 하는 산줄기가 태봉산을 두르고 있다. 봉우리 정상부에는 도굴로 인해 굴토된 흔적이 있으며, 북동쪽에 아기태실비가 세워져 있다. 오래 전에 도굴되었는데, 태함과 아기태실비는 유존하나 태지석은 행방을 알 수 없다.

비와 지석의 명문에 의하면, 주인공은 광해군 11년 6월 23일 오후 9~11시 사이에 태어난 왕녀 아기로 장태는 그해 11월 4일 오전 9~11시 사이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선원록』에 의하면, 광해군은 2명의 부인에게서 1남 1녀의 자식을 낳았다. 숙의윤씨에게서 1619년(己未年)에 옹주를 낳았는데, 박정원에게 시집 간 이 옹주의 출생 연도[己未年]가 나곡리 태실의 비와 지석에 기록된 출생 연도[만력 47년]와 같으므로 이 옹주가 나곡리 태실의 주인공이다.

*출토 유물

○ 아기태실비 : 아기태실비[현고 168cm]는 비수와 비신을 한 돌로 만들었으며, 비대는 별도의 돌로 만들었다. 비수에는 양련과 보주가 장식되어 있으며, 양련의 위쪽에는 연꽃 줄기를 형상화한 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비대는 윗면은 네 모서리 각을 죽여 복연으로 장식하였고, 전면·후면·측면에는 안상을 장식하였다. 비신의 앞면에는 “[황명]만력사십칠년육월이십삼일생왕녀아기씨태실(皇明萬曆四十七年六月二十三日生王女阿只氏胎室)”, 뒷면에는 “만력사십칠년십일월초사일입(萬曆四十七年十一月初四日立)”라고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 태지석 : 태지석[가로 27cm×세로 27cm]은 명문이 앞면에는 “황명만력사십칠년 육월이십삼일해시생왕녀아기씨태(皇明萬曆四十七年六月二十三日亥時生王女阿只氏胎)”, 뒷면에는 “만력사십칠년십일월초사일기시장(萬曆四十七年十一月初四日己時藏)”라 음각되어 있다.

2) 사계리 태실

사계리 태실은 울진군 북면 사계리 산96번지에 위치한다. 태봉은 천변에서 곳집골과 피밭골 사이로 삿갓 모양처럼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정상부에 있다. 주변에는 세천이 흐르며 논들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태봉재’라고 부르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태봉의 산 정상부에 약간의 평탄한 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나지막한 봉분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 봉분이 태함이 묻혀 있는 조선시대 아기 태실로 추정되나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태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삼달리 태실

삼달리 태실[신래 태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66번지이다. 이 태실은 북서쪽의 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끝자락에 돌출되어 솟아오른 삿갓 모양의 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다. 서남쪽으로는 남대천이 휘돌며, 그 주변으로는 논 평야가 펼쳐져 있다. 산 정상부에는 태함이 열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엽전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태지석의 명문에 의하면, 주인공은 1486년(성종 17) 12월 6일 오후 9~11시 사이에 태어난 왕자 견석으로 장태는 다음해인 1487년 4월 7일 오전 11~오후 1시 사이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에 의하면, 성종은 부인 12명, 자녀 16남 12녀를 두었다. 성종의 왕자 태실지와 그 주인공이 대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 신래태실의 견석왕자(堅石王子)는 누구였을까?

성종의 아들 중에 견석왕자는 없을 뿐더러 같은 출생 연도인 1486년생 자식으로는 딸인 정순옹주와 숙혜옹주뿐으로 아들은 없다. 그러므로 견석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한 왕자이거나 어떠한 이유로 왕실 족보에서 삭제된 왕자로 판단된다.

*출토 유물

(1) 태함: 태함(胎函)은 돌로 만들었으며, 몸체인 기석(器石)과 뚜껑인 개석(蓋石)으로 구성된다. 기석은 원통형[높이 89.5cm×지름 94cm]으로 내부에는 원통형 홈을 파고 그 바닥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개석은 반구형[높이 67cm×지름 96cm]이다.

(2) 태항아리: 태항아리는 항아리와 뚜껑으로 구성된다. 항아리[높이 35.6cm×구경 24cm]는 백자로 어깨에서 배가 부르다가 저부로 가면서 좁아지는 기형으로 어깨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다. 뚜껑[높이 16.5cm×개경 29.5cm]은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렸으며, 손잡이 목에는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3) 태지석: 태지석[가로 15cm×세로 20.5cm]은 오석(烏石)으로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정간구획(井間區劃)을 만들어 그 안에 글씨를 “황명성화이십이년십이월초육일해시생 왕자견석태성화이십삼년사월초칠일오시장(皇明成化二十二年十二月初六日亥時生王子堅石胎成

化二十三年四月初七日午時藏”라고 음각하였다.

(4) 엽전: 완형의 조선통보(朝鮮通寶) 동전[지름 23.9mm]으로 사각 구멍이 뚫려 있다. 글자는 보(寶)자의 갓머리가 짧은 단관보(短冠寶)이며, 패(貝)자의 아래 부분이 팔(八)자 모양으로 된 팔족보(八足寶)이다.

4) 온정리 태실

온정리 태실은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산146-1번지에 위치한다. 태실은 주산으로 보이는 백암산의 서남쪽으로 경사를 두고 뻗어 내린 산줄기의 말단부에서 봉긋하게 솟아오른 절태봉이라 부르는 봉우리 정상부에 있다. 태봉산의 아래에는 서쪽에서 내가 산의 남쪽으로 휘돌아 동쪽으로 흘러 마을 앞을 지나가며, 남동쪽 바로 밑에는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태실이 위치한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긴 타원형의 평탄 대지로 되어있는데, 정상 곳곳에는 바위가 산재해 있다. 지금으로서는 태실의 흔적이 찾아지지 않지만, 흥성익이 처음으로 이 절태봉을 태실지로 추정하였다. 풍수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조선시대 태실일 가능성이 높다.

5) 월송리 태실

월송리 태실[화구 태실]은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15-1번지에 위치한다. 태실은 주산인 일출봉[131m]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끝자락에 돌출되어 솟아오른 봉우리 정상부에 있다. 태봉산 주위로 좌청룡·우백호의 역할을 하는 산줄기가 돌려져 있으며,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내가 태봉산의 북쪽으로 돌아 황보천에 합류하며, 주변에는 논 평야가 펼쳐져 있다.

발굴 조사 시 이미 공사로 인해 유구의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며, 태함도 원 위치를 이탈한 상태였다.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주인공을 알 수는 없으나, 조성 시기는 태함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반구형의 개석과 원통형의 기석으로 된 태함의 양식은 조선시대 월산대군 태함(1462) 이후부터 광해군 태함(1581) 이전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현재 확인되는 태함의 양식으로 보아 조성 시기는 성종의 딸 태함(1476)~덕양군 태함(1528) 사이이다.

출토 유물은 태함이 있다. 태함은 기석과 개석으로 분리된다. 개석은 반구형[지름 111cm × 높이 57cm]이며, 기석은 원통형[지름 112cm × 높이 89cm]이다. 기석의 내부에는 큰 원통형 홈을 파고 그 바닥에는 작은 홈을 뚫었다. 또 기석과 개석을 접합한 석회가 부착되어 있는 것 이 일부 확인된다.